

‘지도부 총사퇴’ 압박 속 김한길 최고위원 사퇴

민주 인적쇄신 ‘격랑 속으로’

박지원·이해찬 거부...당내 갈등 여지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새로운 정치위원회를 ‘지도부 총사퇴론’을 들고 나온 데 이어 1일 김한길 최고위원이 곧바로 사퇴하면서 대선을 40여일 앞둔 민주통합당이 인적쇄신의 격랑에 빠져들고 있다.

사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새정치위는 인적쇄신이 정치쇄신의 출발점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며 이날 오후 이 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문 후보 등과 의견이 맞지 않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위는 지도부 총사퇴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강도 쇄신이 전제되어야 문 후보가 처한 답답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당내 비주류 그룹도 ‘이해찬-박지원’ 퇴진을 요구해왔다.

이에 비주류 좌파적인 김한길 최고위원도 이날 지도부 동반퇴진을 요구하며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문 후보가 쇄신을 거리낌없이 이끌 수 있도록 현 지도부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용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도부가 출범 후 다섯달 동안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지도부의 전권을 문 후보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대선기간 지도부의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지도부 총사퇴론은 당장 반발을 불렀다.

우선, 문 후보가 “현실적으로 고려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한해 맡겨주고 시간을 좀 줘줬으면 좋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고성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두 분은 일단 선대위에 참여

하지 않았고 최고위 권한은 전부 후보인 제 위임했으니 사실상 이미 2선 퇴진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도 거부 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힘을 합쳐서 어느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다”라며 “김한길 최고위원의 사퇴 보도가 있는데 정말 그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선대위에 개입하지 않고 원내대책에 전념하고 있다”며 “대선승리에 전념할 때 내분의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후보께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지원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지도부 총사퇴’ 단일화 어떤 영향?

지지를 정체 타개·정치쇄신 물꼬 예상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총사퇴 논란이 야권 후보 단일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단일화 신경전이 팽팽한 상황에서 주도권의 향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 새로운정치위원회(새정치위)의 지도부 총사퇴 요구는 문 후보의 지지를 정체를 타개하고 단일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다목적 카드라는 평가다.

친노 직계 인사 9인의 선대위 퇴진에 이어 이-박(이해찬-박지원) 투톱 퇴진이 핵심인 지도부 사퇴까지 이뤄

져야 국면을 타개할 수 있다는 게 새정치위의 판단이다.

안 후보 측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 쇄신이 압력을 최소화하면서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안 후보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도 안 후보의 지지층인 중도&무당파층이 이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민주당의 이-박 퇴진론에 대한 신중한 태도는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규성·유은혜 의원 등 고(故) 김근태 삼임고문 계열의 민경련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야권

단일후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역사적 책무”라며 “실패하면 이명박 정권보다 더욱 무서운 수구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낙청 교수 등 재야 원로인사가 참여하는 ‘희망 2013·승리 2012 원탁회의’도 논평을 내고 “정치혁신 방안에 관한 양측의 소통과 대화는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안 후보 측 김성식 본부장 은 “각 후보가 나름 고유의 정책과 비전을 갖고 국민 앞에서 소통하는 자체가 정책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단일화의) 전제조건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문성근 민주당 선대위 시민캠프 공동대표와 민주 정책 홍보단 ‘한다go’ 명게능 단장이 1일 광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민주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주 비주류 ‘기득권 포기 10대 방안’ 준비

회기중 골프 안치기·외유성 해외출장 안가기 등

민주통합당 내 일부 비주류 의원들이 정치쇄신의 일환으로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제도개혁을 위한 10대 방안을 조만간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방안엔 회기 중 골프 안 치기, 외유성 해외 출

장 안 가기, 공학 의전실 이용 안 하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10대 선언 준비 작업에 참여 중인 대 교수와의 토론회 이후 자체모임을 갖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비주류 모임인 쇄신모임 소속 일부 인사들은 지난 25일 조국 서울대 교수와의 토론회 이후 자체모임을 갖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모임에서는 국회의장 및 사·도의회 의장의 관공비 축소를 비롯한 ▲사·도의원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 포기 ▲비례대표 의원들의 상시적 국민 간담회 개최 등의 아이디어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연주 의원은 이날 초선의원 모임인 민초넷 주최로 열린 국정감사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국회 기득권 내려놓기와 밀하는 국회 만들기 실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광주서도 ‘투표시간 연장’ 운동 확산

시민단체·민주당 ‘1인 시위’ 등 여당 압박

여야 대통령 선거에서의 투표시간 연장을 놓고 정면 충돌한 가운데 광주에서도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광주·전남시민행동’은 1일 광주 북구 중흥동 새누리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시민행동은 “비용이나 효율성을 핑계로 투표시간 연장을 거부하는 박근혜 후보야말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가”라며 “박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투표율이 저조하지만 530억 원이

나 드는 재외국민투표는 애초부터 시행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시민캠프도 투표연장을 위해 1일부터 전국 100곳에서 동시다발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투표연장을 위해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시민캠프 송갑석(전 전대협 의장)·이병훈(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 공동대표는 각각 광주시청 앞과 광천터미널 유스퀘어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투표연장을 위한 대시민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민주당 선대위 광주 시민캠프 이병훈(왼쪽)·송갑석 공동대표가 1일 광주시청 앞과 유스퀘어 앞에서 각각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매투자
배우면서 수익 내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등 회비 550만원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공증문서, 대여금, 법원판결문, 운송료, 각종채권, 구상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채무자 신용조사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부동산 경제,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근린시설/원룸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숙박시설/상가 김구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충원이사 010-8227-7759
아파트/빌라 박미란팀장 010-8900-3002
주택/재개발 김수희 중개사 010-8567-4600
근린주택 손해원이사 010-9611-2817